

2

가야(伽耶)에서 건너온 미마키(美麻紀伊理毘古):

역사적 기록이 거의없는

야요이 시대의 또 하나의 지배자

212)와 일본서기(NI: 150)는 모두 스진(崇神)을 미마
毘古, 御間城入彦, 御眞木)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예가
의하면 미마키(美麻紀)란 말은 스진이 살았던 궁성의
것이다. 또한 옛날 임금들은 그들 궁성이 위치한 장
포함 시켜서 임금의 칭호를 만드는 관습이 있기 때문
살던 궁성은 미마(美麻)라는 땅에 있었다고 추정할수
다.⁴⁾ 그런데 일본서기(NI: 167)에 의하면 미마키란 미
일본 가나로 발음한 것)를 의미한다. 따라서 예가미
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4)는 미마나(彌摩那)란 명칭이, 한국말의 남(임금, 옛날의 지배자)으
것 이라고 주장하는, 아유카이와 시라토리의 견해를 소개한다.

·던 곳의 지명이라고 생각 되는 미마(美麻)가,
·의 미마나(任那, 彌摩那)를 의미한다고
·있다 . . . 바꾸어 말하면,
·那)가 바로 일본국가가 시작된 곳이고,
·(任那)가 바로[이민족]천신(天神)들의 본거지로,
·터 이들은 스진이란 인물을 지도자로 해서
·를 공략하고 점령 하므로서,
·강림(天孫降臨)이란 말로 표현된
·건설의 임무를 수행했다.
·리 스진은, 우리나라를
·치한 천황(初國文御眞木天皇也)이라고 기록된 것이다.”

(NI: 64)에서 임나(미마나)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스
기록에서 였다: “임나국(任那國)은 소나갈질지를 보내 조
임나는 큐우슈우(筑紫國)로 부터 이천여리 북쪽에 있
기는 바다가 가로 막고 있다. 임나는 신라(鷄林)의 서
하고 있다.”^{<1>} 일본서기의 계산법에 따르면, 이것은 기
있었던 일이다. 임나는 서기 42-562년 기간중에 존재
맹(伽耶聯盟) 구성국가 중의 하나 였었던것 같은데, 일
은 임나라는 표현을 가지고 전체 가야연맹을 지칭하는

(NI: 152)는 다음과 같은 미마키의 말을 기록하고 있다:
(皇祖)들은 나라의 기초를 크게 확장 시켰다 . . . 한
세 와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온갖 재난이 닥쳐왔다. 아
조정이 선정(善政)을 못해서, 천신과 지신(神祇)들이 징
있는것 같다. 이 문제를 신성한 거북에 물어, 우리가
재앙의 원인을 밝혀 내는 것이 어떨까 한다.”^{<2>} 이 기록
스턴(NI: 152n)은, “옛날 일본 사람들은 사슴의 어깨뼈

야 나라들에서 거북이 신령한 물건으로 취급 되었다는
모르고 있었던것 같다.²

(NI: 152-153)는 스진이 어느날 신령한 전갈을 받게 되
는 꿈속에서 좀더 교시를 받기를 원했다는 얘기를 기록
받 그는 꿈을 꾸었다. 고귀한 모습을 한 사람이 그 앞
말하기를, ‘나라의 혼란을 더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습
은 바로 나의 뜻입니다. 당신이 내 아이 오호타타네코
나를 위해 제사를 드리게 하면, 즉시 평온이 회복될것
만아니라 바다 건너의 나라들도 스스로 와서 복속을 할
有海外文國自當歸伏.’”

(NI: 155)는 이어서 기록하기를: 스진은 신하들에게 선
곳에서 살고 있는 야만족들은 . . . 아직 우리의 왕화
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속치 않고 있다 . . . 따
약간명을 선발해서 사방으로 보내려하니, 그 사람들한
뜻을 알려 주도록 해라.” 일본서기 (NI: 160)는 “야만족

然: 183)는 가락국(鵜洛國, 伽耶)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
이후, 이곳에는 지금까지 나라 이름도 없었고, 군신의 칭호도 없었
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귀
의 간(干)이 추장이 되어, 7만 5천명의 주민을 다스리고 있었다 . .
(서기 42년) . . . 그들이 살고 있는 북쪽 구지(龜旨)에서 무엇을 부
리가 났다 ‘황천(皇天)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새로 나라
이 되라고 하였으므로 일부러 여기에 내려왔다. 너희들은 모름지기
기의 흠을 파면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 . . 라고 노래
,’ (그들은) 붉은 보자기에 싸인 금 향아리속에 . . . 여섯개의 황금
: 발견했다 . . . 그 알들은 여섯명의 어린아이가 되었다 . . . 그중
|난 아이가 10여일 후에 키가 9척이나 되었다 . . . 그가 왕위에 오
)라 칭했다. 나라를 대가락(大鵜洛) 혹은 가야국(伽耶國) 이라고도 하
야종의 하나다. 나머지 다섯 사람도 각각 다섯 가야의 임금이었다

두 평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3<4>}

(NI: 199-208) 역시 기록하기를 “미마키(御眞木入日子印惠)의 미두카키 궁(師木水垣宮)에 거처 하면서 천하를 다스린 그의 재위 기간중 오호비코(大毘古命者) 등이 동방 12개 나라를 정복하여, 그곳의 불복하는 자들을 평정토록 했다. 히코미야마와 파 나라로 파견 되었다 이들은 그곳 나라들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드렸다. 이리하여 천하는 태평하고 성들은 부유하고 번성했다. 당시 남자들은 사냥을 해 마치고, 여자들은 수공을 해서 바쳤다. 따라서 이 시대 처음으로 나라를 다스린 미마키의 재위기간이라 부른

(NI: 161)에 의하면, 미마키가 하루는 그의 두 아들에게 밤에 꾸는 꿈의 내용을 말해보라고 명했다고 한다. 그러자 첫째는 “저는 미모로 산에 올라 동쪽을 향해 여덟번 창을 휘둘렀습니다”라고 말했다. 둘째 아들은 “저는 난꼭대기에 올라가 사방에 그물을 쳐서, 곡식을 먹어치우는 일을 쫓아버렸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얘기들을 듣고, 미마키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말이는 동쪽만을 향했다. 그러니 동쪽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둘째는 사방에 그물을 쳤으니 짐의 자리를 물려 받는 것이 도리 일것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다.^⑦ 일본서기는 계속해서 미마키의 세째 아들(垂仁)의 얘기로 옮겨간다.

(NI: 166-167)에 의하면: “미마키 재위 기간 중, 머리에 검은 사람이 (애스턴은 옛 중국 황제가 이런식으로 묘사되

(NI: 161)는 또 미마키가 내린 다음과 같은 조서를 기록하고 있다: “선박이 필요한 물건이다. 요즘 해안지역의 주민들은 선박이 없어, 물으로 물고기를 잡는 고생들을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군현은 선박을 건조 하도록

三支子) 아라사등(阿羅斯等)인데, 아리질지 간기(阿利叱智 부른다고 대답했다. 그는 일본땅에 성군이 있다는 소 그에게 귀화 하려고 아나토까지 왔었는데, 그곳에서 이 ‘내가 이 나라 왕이다. 그러니 다른곳은 찾아갈 필요 고 말했다. 내 그자를 찬찬히 훑터보니 분명히 국왕이 그래 그곳을 다시 떠났는데, 길을 알수 없어 이 섬으로 2로 북해를 떠돌아 다니다가, 이즈모(出雲國)를 지나 여 : 것이다 라고 말했다. 허나 이때에는 이미 미마키가 스이닌을 섬기게 되었다. 삼년이 지난 어느날 스이닌이 이 물었다. ‘너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러 은 몹시 돌아가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스이닌은 과 같이 말했다. ‘네가 만약 길을 헤매지 않았었다면 에 이골에 도착해서, 그를 섬길수 있었을 것이다. 그 거든 미마키의 이름을 취해서 너희 나라 이름으로 만들 國名追負御問城天皇御名 便爲汝國名).’ 그리고나서 스이닌 에게 붉은 비단을 주어 고국으로 돌려 보냈다. 그 나 키마나(한국 발음으로는 임나)라 칭하게 된 것은 바로 : 때문이었다(故號其國謂彌摩那國) . . . 신라 사람들이 듣고 길목에 군사를 동원해서 아라사등으로 부터 붉은 : 빼앗아 갔다. 이로부터 그 두나라 사이의 적대 관계 변이다.”^⑧

(NI: 166)는 또 같은 내용의 얘기를 약간 다르게 기술하 그해에(스이닌 2년) 임나사람 소나 갈질지(任那人蘇那曷 曷허가를 요청했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후한 선물이 주 임나왕(任那王)에게 줄 선물 붉은 비단 백필도 그에게 그러나 신라 사람들이 도중에서 그 선물들을 모두 강탈 : 이로부터 그 두나라 사이의 원한 관계가 시작된 것 이 모든 얘기들은 기원전 28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기

게 적혀진것 같다. 통감(通鑑)에 의하면 가라(伽耶, 任 42년까지 왕국으로 형성되지 않았었고, 또 통감에서 최 가라와 신라 사이의 충돌은 서기 94년에 일어난 것이 년, 115년, 116년, 203년에도 그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 기록 되어있다”라고 말한다.

·들을 상당히 혼동 시키고 있는 이들 고사기, 일본서기 轉)에 관한 기록들은, 정말로 가야연맹의 (좁더 구체적 轉면, 임나의) 지배씨족의 한 사람이, 서기 42년 부터 轉 한국으로 부터 일본으로 건너가, 큐우슈우 지역에 있 나라의 임금인 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 轉된 위지(魏志)는 그 당시 큐우슈우에 100여개의 부족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서기는 스이닌(垂 轉)등(俄羅斯等)에게, 미마키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을 바 한 덕분에, 가야연맹에 속하는 나라 하나가, 미마나(임 轉)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스진 자신이 서 건너왔기 때문에 스진을 미마키라고 부르게 되었다 轉)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인다.

164) 역시, “일본서기가 말하는 것은, 남한의 미마나(任 轉) 팔 이름의 『미마』라는 두 글자가, 미마키(美麻紀, 御眞 轉)의 이름속의 『미마』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것인데, 오히 轉)는 스진(미마키) 이름속의 미마 라는 두 글자가, 미마나 轉)래 되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라고 말한다. 예가 轉) 가야지역에서 건너와 큐우슈우를 점령한 사람이 바로 轉)였고, 킨키(近畿)지역으로 동정(東征)을 해서 야마토 轉)것은 그의 후손인 호무다(應神)였다고 주장한다. 예가 轉)민족의 일본공략을 지휘 한것이, 바로 위지에서 3세기중 轉)삼(三韓) 사람을 통치 했다고 말하는, 진왕(辰王) 혹은 轉)의 하나인 미마키 었다고 믿는다.⁴ 분명히 예가미는

장의 치명적인 결함은, 고고학적으로 보아 오오진(應
正) 정복자에 속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진(崇神)도 기
간주하는 것이다. 에가미는 스진의 시대를 “원시 야
시대”라고 부르면서, 이 시기를 초기 고분시대로 구분하
지만 에가미의 이 주장이 지지를 받으려면, 일본열도
본시대에 기마민족에 의해 침략당한 구체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필요하다. 그는 “아직 그의 주장을 결정적으로 증명 할 수
적 물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 불명의 연결고리(missing link)라고 할
이 물증은 장래에 틀림없이 발견 될것”이라고 믿고 있

(NI: 177) 역시 미마키가 기마정복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술에서 암시해 주고 있다: “고(故) 미마키도 천신지
체를 계속 지냈지만, 그는 그 근원을 세밀하게 탐구하
세세한 부분은 대충 넘어 갔다. 결과적으로 그는 단명
(9) 고사기에 의하면 미마키는 168세에 죽었고, 일본서
서도 미마키가 120세에 죽었다고 기록을 해 놓고서는,

한의 진왕(辰王)들이 월씨국(月氏國)을 다스렸는데, 한(韓)의 24개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에가미는 야마
, 진왕들의 후손이라고 믿는다. 에가미는 구당서에서 나오는, “혹자
기 옛날에는 조그만 나라였었는데, 왜(倭)국의 땅을 병합하게 되었다
구절을 인용 하면서, 이것을 진왕들의 후손인 스진이 미마나(가야)로
를 침공해서 미마나·큐우슈우의 연맹을 수립 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일본부”(任那日本府)라는 표현의 근원을 소위 미마나·큐우슈우 연맹
찾고 있다.

2: 303-324)는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 결과로 기마민족설이 완전히 실
이다.

